

2021회계연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58호, 제3259호, 제326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2년 5월 30일
4.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II.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총괄은 다음과 같음.
 - ▶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현액 665억 5천 6백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736억 7천 4백만원이며, 이 중 722억 8백만원(98%)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4억 6천 6백만원임.

- 세출예산현액 4,605억 2천 5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494억 6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9천 8백만원과 보조금반납액 10억 5천 7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 5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53억 3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3억 5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2천 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천만원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분야별·부문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는

- 일반공공행정 분야(일반행정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71억 8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1억 8천 9백만원임(집행잔액 112,970원).
- 사회복지 분야(노동, 사회복지일반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596억 7천 1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41억 4천 7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5천 9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4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29억 1천 6백만원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3,932억 7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877억 5천 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천 9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8억 9백만원, 집행잔액은 29억원임.

- 기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4억 5천 8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억 6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8천 9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 사회복지 분야(노동부문)는 세출예산현액 103억 6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4억 4천 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2천 5백만원임 (집행잔액 230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49억 6천 5백만원에 대해 지출액 49억 1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5천 만원임.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비는 총 4건(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2건),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으로, 11억 1천 2백만원을 배정하여 11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의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2,700억 8천 9백만원, 사용액은 2,784억 3천 1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1,442억 3천 5백만원임(전년도 1,525억 7천 7백만원 대비 5.5% 감소).
- 사회투자기금의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290억 2천 8백만원, 사용액은 175억 6천 4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272억 6백만원임(전년도 157억 4천 2백만원 대비 72.8% 증가).

Ⅲ.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65억 5천 6백만원으로, 736억 7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해 722억 8백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98%), 미수납액은 14억 6천 6백만원임.

< 2021년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6,556	73,674	72,208	1,466	98.0
세외수입	6,136	13,928	12,462	1,466	89.5
경상적 세외수입	876	756	722	34	95.5
재산임대수입	46	58	58	-	100.0
공유재산임대료	46	58	58	-	100.0
사용료수입	703	50	35	15	70.6
기타사용료	703	50	35	15	70.6
이자수입	127	649	629	19	97.1
기타이자수입	127	649	629	19	97.1
임시적 세외수입	5,098	13,013	11,625	1,389	89.3
보조금반환수입	2,316	8,654	8,236	418	95.2
시·도·군보조금반환수입	2,316	4,759	4,343	415	91.3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3,895	3,892	3	99.9
기타수입	1,835	3,069	3,064	6	99.8
그외수입	1,835	3,069	3,064	6	99.8
지난년도수입	946	1,290	325	965	25.2
지난년도수입	946	1,290	325	965	25.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58	115	43	72.9
과태료	162	158	115	43	72.9
기타과태료	162	158	115	43	72.9
보조금	59,942	59,398	59,398	-	100.0
국고보조금등	59,942	59,398	59,398	-	100.0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국고보조금등	59,942	59,398	59,398	-	100.0
국고보조금	33,423	33,418	33,418	-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68	8,830	8,830	-	100.0
기금	17,151	17,151	17,151	-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9	348	348	-	100.0
보전수입 등	479	348	348	-	100.0
전년도이월금	479	348	348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79	348	348	-	10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며, 징수결정액 139억 2천 8백만원 대비 89.5%인 124억 6천 2백만원을 징수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7억 5천 6백만원 대비 95.5%인 7억 2천 2백만원을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30억 1천 3백만원 대비 89.3%인 116억 2천 5백만원을 징수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1억 5천 8백만원 대비 72.9%인 1억 1천 5백만원을 징수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으로, 593억 9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4천 8백만원으로, 전액 수납함.
- 미수납액 14억 6천 6백만원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기타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세입결산 수납액과 수납률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2019년 96.5% → 2021년 98.0%).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1	66,556	73,674	72,208	1,466	-	-	98.0
2020	46,623	53,476	52,184	1,292	-	-	97.6
2019	44,547	43,996	42,445	1,475	75	-	96.5

-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8.5%로 당초 세입예산 665억 5천 6백만원보다 56억 5천 2백만원이 초과 수납됐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억 7천 4백만원 증가함.

- 세입결산이 당초 추정액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산과목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¹⁾이 신설되어 38억 9천 2백만원이 순증하고, 그외 수입이 12억 2천 9백만원(67%) 증가했기 때문임.

나.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은 총 4개 과목으로, 총 40억 5백만원이 수납됐음.

<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0	4,013.1	4,005.1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0	3,895	3,892	- 2021년 세입예산확정 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반환금수입' 분리 및 신설(예산편성기준)
그외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	31	31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과지급 수당 환수조치 등
지난년도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	0.1	0.1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지원 사업비 잔액 반납분으로 지난년도 자치구 추경 미편성으로 보조금 반납 지연(강서, 양천)
기타이자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	87	82	- 자치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음연도에 정산 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 미편성 세입예산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운영 기준”)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던 세입이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분리·신설되었기 때문임.

1) 사·도, 사·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그러나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개정은 2020년 7월에 확정되었으므로 2021년 예산편성시 세입과목을 변경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2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과목의 변경을 소홀히 함.
- 또한, 과도한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3,895	3,892	
노동정책담당관	1,236	1,236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681	1,678	-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404	404	-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공정경제담당관	35	35	-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장기안심상가 정산잔액
사회적경제담당관	539	539	- 소셜벤처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공정무역 등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과다 수납 현황

(1) 과소수납 현황

-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20억 1천만원으로, 기타사용료와 지난

년도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 계	45,081	43,071	△2,010	
기타사용료	703	35	△66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시기가 2022년으로 유예됨
지난년도수입	946	325	△621	- 공제경제담당관 소관 2021년 세입예산 편성시 2019년도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을 반영하여 산출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459백만원) - 100만원 이상 체납된 세외수입은 38세금징수과에 이관되어 압류징수를 진행하나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부진 등으로 수납이 어려웠음.
기타과태료	162	115	△47	-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을 부족 수납함
국고보조금	33,423	33,418	△5	- 지역노사민정 협력지원 사업 국비 확정내시액 감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368	8,830	△538	- 사회적기업 경영악화로 신규채용인원 등 보조금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국비 미교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9	348	△131	- 2020년 동대문종합시장 사업계획 축소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집행 잔액 발생(1억원) -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세입예산 편성시 지난 3년간 수입징수액의 평균을 토대로 산출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2억3천만원)

- 기타 사용료는 세입예산액 7억 3백만원 대비 6억 6천 8백만원 부족한 3천 5백만원이 수납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징수가 2022년으로 유예되면서 감소됨.

- 지난년도수입은 세입예산액 9억 4천 6백만원 대비 6억 2천 1백만원 부족한 3억 2천 5백만원이 수납됨.
 - 2019년에 발생한 과태료 등의 미수납분을 2021년 세입에 반영했으나 납부자의 폐업, 납부태만 등으로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함.
 - 또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된 100만원 이상 체납과태료의 체납 징수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부서간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과태료는 세입예산액 1억 6천 2백만원 대비 4천 7백만원 부족한 1억 1천 5백만원이 수납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의 수납이 부진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세입예산액 93억 6천 8백만원 대비 5억 3천 8백만원 부족한 88억 3천만원이 수납됨.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영악화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과 ‘마을기업 육성’ 에서 보조금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국비 교부액이 감액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입예산액 4억 7천 9백만원 대비 1억 3천 1백만원 부족한 3억 4천 8백만원이 수납됨.

- 지난 3년간 수입징수액의 평균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2억 3천 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

(2) 과다수납 현황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 규모는 76억 6천 1백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 계	4,324	11,985	7,661	
공유재산 임대료	46	58	12	- 상암소셜박스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반영
기타 이자수입	127	629	502	-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평균치로 세입예산 과소 편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316	4,343	2,027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조 사업 등 집행잔액(+1,502백만원) -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의 집행잔액(+268백만원)
자체보조금 반환금수입	-	3,892	3,892	- 2021년 세입예산확정 후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예산과목 분리·신설(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금수입)
그외 수입	1,835	3,063	1,228	- 2020회계연도 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과다 등(+2,235백만원) - 예산확정 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분리 및 신설되어 부족수납 (△814백만원)

-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천 6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 증가한 5천 8백만원이 수납됨.
 - 상암소셜박스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함.

-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액 4천 6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 증가한 5천 8백만원이 수납됨.
 -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추계했으나 추경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보조사업 등에서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발생함.

-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세입예산액 23억 1천 6백만원 대비 20억 2천 7백만원 증가한 43억 4천 3백만원이 수납됨.
 -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입추계를 했으나 추경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보조사업과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함.

- 그외 수입은 세입예산액 18억 3천 5백만원 대비 12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30억 6천 3백만원이 수납됨.
 - 증가원인은 2020년 이전에 교부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임.

- 이상의 2021년 세입예산의 과소·과다 수납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지난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소추계, 신설된 세입 과목 미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함.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변경된 세입과목을 즉시 반영해야 할 것임.

라.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미수납액은 14억 6천 6백만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기타 57.6%(8억 4천 5백만원), 납세태만 40.9%(5억 9천 9백만원), 납기미도래 1.5%(2천 2백만원)이며 결손처리는 없음.

< 미수납액 발생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미수납액	사유별		
		납세태만	기 타	납기미도래
합 계	1,466	599	845	22
기타사용료	15		15	
기타이자수입	19		19	
기타과태료	43	21		22
사·도비반환수입	415		415	
지체보조금반환수입	3		3	
그외수입	6		6	
지난년도수입	965	578	387	

-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의 96.5%(5억 7천 8백만원)은 지난년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원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의 미납임.
- 기타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의 45.8%(3억 8천 7백만원) 역시 지난년도 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시비보조금 횡령금 반환금²⁾, 자치구 보조금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임.
-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보조금 반납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교부금 산정시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반납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4,675억 1천 2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72억 3천 5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11억 1천 2백만원)을 포함해 4,758억 5천 9백만원으로 증가함.

2)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1억여원 중 3억 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반환금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했으며 납부 잔액이 미수납액으로 반영된 것임.

<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467,512	8,347	475,859	729,921	6,023	580	5,443	1,057	5,955	1.3
일반회계	454,372	6,153	460,525	449,465	4,098	580	3,518	1,057	5,905	1.3
도시개발 특별회계	13,140	2,194	15,334	13,359	1,925	-	1,925	-	50	0.3

- 이 중 97.3%인 4,628억 2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0억 2천 3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0억 5천 7백만원, 집행잔액은 59억 5천 5백만원(불용률 1.3%)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05억 2천 5백만원으로, 4,494억 6천 5백만원을 지출(97.6%)하고, 40억 9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5천 7백만원, 집행잔액은 59억 5백만원(불용률 1.3%)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3억 3천 4백만원으로, 87.1%인 133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천만원(불용률 0.3%)임.

- 최근 3년간 불용률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2.5%(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7%)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467,512	7,235	1,112	12,573	3,011	475,859	462,823	6,023	5,955 (1.3)
2020	730,702	3,167	17,901	690	1,888	751,770	734,092	7,235	10,095 (1.3)
2019	196,563	7,002	51,000	1,058	785	254,565	240,883	3,167	9,162 (3.6)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2021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7건, 30억 1천 1백만원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금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		9,237	△3,011	3,011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60	△7		01.26	좋은 일자리 도시협약체 사무국 직원 근무연장기간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70	△100		04.14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인원 대비 상품권 지급예산 부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0		100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80	△480		05.20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연장 추진 사업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0		48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사무관리비	216	△80		09.16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민간 위탁 시범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71		80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골목형상점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	△1,800		10.14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확대(1개 자치구→7개 자치구) 시행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1,80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500		10.1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집행 방식 변경(보조 →직접수행)
	사무관리비	25		50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32	△44		11.16	노동자복지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집기취득
서울시 노동자복지 관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23		44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은 사무국 직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확보하기 위해 7백만원을 전용함.
 -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전년도 결산과 동일한 사유로 예산전용³⁾이 반복 발생되고 있어 재발방지 노력이 요구됨.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은 사업대상이 당초 1개 자치구에서 7개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원’ 예산 18억원을 전용함.
 - 전통시장이나 개방형 소상공인 사업장 직접지역에 VMD⁴⁾방식의 판매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됐으며, 사전 수요 조사에서 다수의 자치구가 사업 확대를 요청한데 따른 것임.

3) 2020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4) VMD(Visual Merchandising) : 시각적 상품정책 또는 시각적 마케팅/판매/기획 등을 말하며 매장, 전시부스, 쇼윈도 등의 공간을 나름의 스토리나 이미지, 컨셉에 맞게 기획 및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임.

- ‘골목형상점가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후 8월 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연도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함.
- 그러나 이후 공모일정과 사업기간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예산 25억원 중 18억원(72%)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으로 전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사·의결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전용제도의 과도한 활용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3건, 23억 5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2021.7.9.)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무관리비 3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억원)이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소상공인 플랫폼담당관으로 각각 이관됨.

다. 변경사용

- 2021년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2건, 125억 7천 3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금액		승인 일자	변경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		63,697	△12,573	12,57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	△100		2.4.	착오 분류된 예산과목의 변경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0		100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916	△11,285		2.16.	국고보조금 세입조치를 위한 국고 보조를 대비 예산 변경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85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30	△200		4.22.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변경 추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무관리비	17,500	△10		7.29.	서울품물시장 2021년 부지사용료 부족예산 확보
서울품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738		10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184	△5		8.4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변경 중개수수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179	△10		8.24.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 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	△233		9.14.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추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150	△150		11.15.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	153		150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뚝다 노래방)	민간경상사업보조	344	△344		11.29.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 변경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4		344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00	△148		12.02.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으로 통합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525		148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358	△40		12.06.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 사업 추진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450		40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금액		승인 일자	변경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53	△48		12.20.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사업에 따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303		48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억 8천 5백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이 자치구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차등지원(3%, 4%)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비율에 맞춰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수행하던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 (민간위탁→자치구 공모)함에 따라 사업과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함.
 - 그러나 이 사업예산의 50%(1억원)를 명시이월하여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됨.
-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1천만원)은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⁵⁾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⁶⁾로 각각 변경함.

5)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건물 소유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 중개수수료

6)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3천 3백만원)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과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함.
- 이 사업의 불용률은 65.1%(집행잔액 1억 5천 2백만원)에 달해 과도한 예산변경이었음.
- 예산의 변경 또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속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또한, 변경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연내에 변경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해 이월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실제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변경을 지양해야 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0억 2천 3백만원(일반회계 40억 9천 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2천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5억 8천만원), 사고이월은 11건(54억 4천 3백만원)임.
- 명시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민간경상보조)	450	138	250	6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 저조로 5개 기업만 선정하고 11월 추가 모집을 통해 2022년 25개 기업 선정예정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	100	100	-	자치구 신청저조로 당초 목표 4개소 중 2개소만 설치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58	2,523	23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추진 불가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신청저조로 인해 추가공모를 통해 2022년에 25개 기업을
신규로 인증하고자 2억 5천만원을 이월함.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은 자치구의 신청이 저조해
당초 설치목표 4개소 중 2개소를 2022년에 설치하고자 1억원을
이월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행사 추진이
어려워 자치구 요청으로 2억 3천만원을 이월함.
-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그러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명시이월은 공모신청이 저조한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편성 당시부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이벤트 사업 등에서 발생한 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노동존중문화 확산	50	18	20	12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잔금 지급(준공 : 2022.1.)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	817	745	53	1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해설서 발간지원(2021.12.2.)으로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제작 지원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50	29	13	8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잔금 지급 (준공 : 2022.1.)
서울품물시장 활성화 (시설비)	1,953	555	1,288	110	준공기한 연장(2022.1.)
서울품물시장 활성화 (감리비)	20	-	20	-	준공기한 연장(2022.1.)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673	469	200	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용역 준공기한 연장 (2022.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10,138	8,011	1,894	58	고용노동부 공문(고노부 사회적기업과-4051, 2021.11.23.)에 따라 지원 약정기간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질 경우 중단없는 보조금 지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66	32	30	4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수행되는 사업성과평가 용역으로 2차년도 사업비를 2022년에 집행 하도록 계약 체결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시설비) <도시개발특별회계>	4,371	2,459	1,912	-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준공기한 (2022.3.) 미도래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감리비) <도시개발특별회계>	257	251	6	-	증축 및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2022.2.) 미도래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부대시설비) <도시개발특별회계>	8	1	7	-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제작 용역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5천 3백만원을 이월함.
-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연도말에 용역을 발주⁷⁾해 예산현액의 44%(4억 6천 6백만원)를 이월시켜 의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는 공사소음에 따른 공정시간 조정 민원으로 준공기한이 연장⁸⁾되어 시설비 12억 8천 8백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을 각각 이월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과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은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8억 9천 4백만원과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이월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은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상 지원기간이 다음 회계연도 까지 이어질 경우 이월가능하다는 공문에 따라 이월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은 제2호 SIB사업(청년 실업해소 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장기계속계약(2020.9.~2023.9.)하면서 2차년도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업비는 2022년에 지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7) 7건의 용역 중 6건을 12월에 발주함.

8) 당초 : 2021.12. → 변경 : 2022.1.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준공시에 청구하기로 하여 시설비 19억 1천 2백만원, 감리비 6백만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각각 이월함.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불용률은 2019년도 3.6%, 2020년도 1.3%, 2021년도 1.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59억 5백만원(1.2%),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천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예산현액(A)	254,565	751,770	475,859
일반회계 예산현액	254,565	742,804	460,52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	8,966	15,334
전체 집행잔액(B)	9,162	10,095	5,955
일반회계 집행잔액	9,162	10,091	5,905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	4	50
전체 불용률(B/A)	3.6	1.3	1.2
일반회계 불용률	3.6	1.3	1.2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	-	-	0.3

-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13개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울시 촉탁직 책임보험	4	3	82.2	가입근거에 대한 이견 및 가입지연으로 2021.9.24.자로 가입함에 따라 1년치 공제회비 중 일부만 납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2	5	45.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도시대상 연락 및 홍보 비용 감소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50	8	17.6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사업자 선정에 따른 낙찰 차액(용역비 42백만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396	89	22.6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건비 미집행, 집합 강의와 대면 회의 제한으로 축소 운영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088	383	18.4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사업계획을 미제출하여 보조금(370백만원) 전액 불용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76	25	32.4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시장 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수요가 낮아 집행실적 저조(7개 단체 지원 계획 하였으나 5개 단체 모집)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233	151	65.1	2021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자치구 추경예산(구비 부담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불용액 발생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10	10	100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경제민주화 행사 미개최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9	3	39.4	기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상인 어려움 등으로 실태조사 1회만 실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58	593	28.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기업 경영 악화로 신규 고용 수요 감소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295	320	24.8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주민모임 등 대면필수 사업 시행 곤란 및 참여수요 감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611	117	19.1	심사대상 사업의 혁신성 부족 등으로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계획대비 과소 선정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210	49	23.6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오프라인행사의 온라인 전환(사회적경제 주간행사)으로 시설 설치비 등 감소 및 대면회의 감소에 따른 불용

- 이 중 서울시 촉탁직 책임보험과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한계 상황에 놓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함.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 미래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에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세출예산도 당초 2,126억원에서 4,675억원으로 증가함(119.9%).

< 2021년 추경 회차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억원)

2021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2,126 ※ 간주처리 포함 기정예산 2,401	4,158 (+1,757) ※ 간주처리 포함 기정예산 4,162	4,675 (+513)

- 제1회 추경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등을 위해 1,757억원을 증액함.
- 제2회 추경은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등을 위해 513억원을 증액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됨.
- 2021년 추가경정예산 중 15% 이상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로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에서 낙찰차액으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15%이상) 과다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집행액	집행율	이월	집행잔액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0	50	29	57.4%	13	8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전환),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집행잔액을 남김.

<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대비 집행잔액 과다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전환)	16,836	650	16,568	94.8	918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91	25	912	97.5	24

- 전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중에 7개 사업에서 15%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양호한 예산운용을 함.

- 향후에도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사. 성과보고서

-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6개, 성과지표 11개를 설정하고, 대상 사업비로 4,628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 이 중 8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⁹⁾했으나(달성률 72.7%),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확충은 자치구 시설확보의 어려움과 재정부담으로,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은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비자 상담의 증가로,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산과 선정규모 감소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지표 비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계획서)	성과지표 (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보고서)	성과지표 (보고서)	달성 여부
노동이 존중 되고 민생이 평안한 경제 민주화 도시 (4,628억 2천 3백만원, 달 성률 72.7%)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 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설치운영 수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 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확충 공정을	×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수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수	○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 이용만족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 이용만족도	○
		전통시장 상인 사업 효과성 인식도		전통시장 상인 사업 효과성 인식도	○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및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 간편결제 보급 지원 및 활성화 통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제로페이 가맹점	○	

9) 초과달성 1개 성과지표(서울사랑상품권 판매액) 포함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계획서)	성과지표 (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보고서)	성과지표 (보고서)	달성 여부
		서울시상상공권 판매액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위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서울시상상공권 판매액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 성립 건수	소상공인 보호 등 공 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성립 건수	○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 구제율	×
사회적경제 및 소셜 벤처의 자립 능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 처의 자립 능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공동주택단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 이는 전년도 달성률 70%에 비해 높은 실적이지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변경¹⁰⁾되는 문제도 발견됨.
- 향후에도 예산 전 과정에서 성과지표 달성도를 꾸준히 관리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결과를 다음해 성과지표에 환류하도록 노력해야 함.

아. 성인지예산 검토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1년 성인지예산¹¹⁾은 노동복지, 소상공인,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서 성별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2개 사업¹²⁾에 예산현액 473억 4백만원을 반영하고, 이 중 438억 8천 4백

10)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설치운영 수'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확충 공정률'로 변경됨.

11)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12) 성별영향평가사업 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5개

만원(92.8%)을 집행함.

- 이는 2021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7.3%)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 성인지예산(17개, 예산현액 446억 1천 2백만원, 집행률 92.6%) 대비 예산 규모와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 사업수는 감소함.
- 또한, 성인지대상사업 12개 중 성과목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5개¹³⁾에 불과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4개임.
-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발간물의 이용자 수, 성별 구분이나 특정 성별에 유·불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는 적절한 성과목표로 보기 어려움.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 내역 >

(단위: %, 개, 명)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성별영향평가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	11,000명	170,970명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권리수첩 발행부수	20,000부	41,000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및 법률상담 이용자 수	82,000명	114,970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여성 소상공인 교육 참여율	56%	46%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소셜프랜차이즈 참여 여성 점주 수	108명	110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수	290명	375명

1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단위: %, 개, 명)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함께누리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4,000백만원	3,738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이용자 수	2,500명	2,454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배포 수	10,000부	12,500부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예방교육 남성 참여율	46%	39%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여성대표 협동조합 설립수	90개	110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5,800개	6,140개

-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¹⁴⁾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개 사업¹⁵⁾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대다수 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설정되거나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14)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굴한 대상사업을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함.

15) 노동존중문화 확산,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자. 사업별 검토

(1)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의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노사관계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8천 8백만원 중 17억 4백만원(81.6%)을 집행함.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88	1,704	1,704	-	384	18.4

- 서울시는 1995년부터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 사업(노조간부 교육, 체육대회, 워크숍),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사업, 문화시찰 등), 대외협력 및 사회공헌 사업(국제교류 및 ILO총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 음.
- 2021년에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1억 5천만원¹⁶⁾,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16억 1천 2백만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3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함.
- 이 중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6개 단체에 1억 3천 6백만원,

16) 지원사업에 따라 법인·단체 당 1천만원~3천만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은 15억 6천 8백만원을 각각 집행함.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총연맹 방침에 따라 향후 서울시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의사가 없음을 통보(2021.8.20.)하여 3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¹⁷⁾.
- 민주노총은 이미 2월부터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 수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유선통보(2021.6.)를 통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음.
- 이후 보조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추가 소요 되면서 추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킨 바, 향후에는 예산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천 6백만원 중 3억 7백만원(77.5%)를 집행함.

17) 이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4천 4백만원을 전용(2021.11.16.)함.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96	307	307	-	89	22.5
민간경상사업보조	123	107	107	-	16	13.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69	196	196	-	73	27.1
자산및물품취득비	4	4	4	-	-	0

- 종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했으나, 2021년부터 노사민정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민간부문의 참여 도모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 >

- 주요기능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 업무공간 : 중구 무교동 센터플레이스빌딩 7층(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217㎡)
- 인력현황 : 3명(대외협력팀장, 운영팀장, 운영담당), 사무국장 공석, 운영팀장 육아휴직 중(2021.4.~)
- 관련예산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45,000천원(국비 20,250천원, 시비 24,75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396,359천원
- 운영체계

```

            graph TD
              A[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B[사무국]
              A --- C[분과위원회]
              B --- D[의제개발·조정위원회]
              B --- E[특별위원회]
              B --- F[분과위원회]
              G[※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 B
          
```

- 세부예산은 노사민정 자료발간, 포럼 운영, 교육, 아카데미, 노동현안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는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와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성됨.

- 집행잔액은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아카데미, 대면회의 등의 개최 부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서울시장의 유고(2020)와 보궐선거(2021)로 인한 사무국장 미채용과 직원 휴직으로 인해 발생함.
- 그러나 보궐선거 이후 현재(2022.6.)까지도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고, 교육, 아카데미 등 행사성 사업의 실적부진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므로 적절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사업비로 추진되는 ‘서울지역 노동현안 연구용역’ 이나 ‘지역 고용 노동현황 현장조사’ 는 서울시 개별사업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간 연계를 통해 용역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해야 함.

(3)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천 3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8천 1백만원(34.8%)을 집행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	81	81	-	152	65.2

- 서울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2021.4.1.)으로 등록 전통시장과 인정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의무가 됨.
- 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비에서 2억 3천 3백만원을 변경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신설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 변경내역 >

예산과목			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사유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지차단체경상보조금	500	△233		9.14.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	지차단체경상보조금			233		

-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상품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60% 이내에서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2021.1.1.~'21.10.31.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 2021.11.1. 이후 가입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2021.9.1. ~ 12.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22,520원 한도(시 30%, 구 30%, 자부담 40%)
 - 실제 납입(의무가입 사항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22,250원 내에서만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회에 가입한 상인이 소속 전통시장 상인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상인회가 취합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치구가 상인에게 공제료를 지원한 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됨.
- 그러나 3개월(2021.9.-12.)에 불과한 사업기간으로 면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못했고 매칭비 부담을 위한 자치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8,129만원만 교부(집행액 7,006만 3천원)됨.
- 합리적인 설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저조한 예산집행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4)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 전통시장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이벤트를 개최해 상인매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3천 1백만원 중 34억 9천 2백만원 (88.8%)을 지출하고 4억 3천만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9백만원임.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931	3,922	3,492	430	9	0.2
사 무 관 리 비	673	669	469	200	4	0.5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500	500	-	-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58	2,753	2,523	230	5	0.2

- 이 사업은 당초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 및 컨설팅’ 용역비(사무관리비) 2천 5백만원과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억 1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를 위한 10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과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을 위한 3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추가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추가경정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감(A-B)
합 계	3,439	2,139	1,300
사무관리비	25	2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4	2,114	3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	1,000

-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 중 5억원은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¹⁸⁾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의 추진방식을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수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용(2021.10.14.)함.
-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추진주체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이었으므로 사업 추진과 회계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했음.

18) 전통시장에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은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페이백하는 이벤트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뗏다 노래방!’ 예산(3억 4천 4백만원)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로 변경(2021.11.29.)하고,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예산(1억 4천 8백만원)을 변경(2021.12.2.)하여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과 통합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전용·변경 내역 >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변 경 사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전용)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500		10.1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집행 방식 변경(보조→직접수행)
	사무관리비	25		500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뗏다 노래방!)(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344	△344		11.29.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 변경 추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4		344		
우리농산물 공동 구매사업 지원(변경)	사무관리비	200	△148		12.02.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525		148		

- 그러나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에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 을 포함하기 위해 용역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2021.12.3.)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2억원(사무관리비)을 사고이월함.
-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예정이던 3개 자치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미운영,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여 2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이월 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사 무 관 리 비 (사 고 이 월)	673	469	200	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운영 준공기한 연장 (2022.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명 시 이 월)	2,758	2,523	23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추진 불가

- 하나의 사업에서 추경증액 후에 예산전용, 예산변경(2회),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예산의 신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예산변경제도와 이월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5)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 일반 시민과 경제민주화 분야 관련자들에게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예산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됨.

<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	-	-	-	10	100
사 무 관 리 비	5	-	-	-	5	100
행 사 운 영 비	5	-	-	-	5	100

-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최초 구성(2016.9.30.) 이후 서울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심의를 위해 20명의 위원이 전체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상생분야, 공정분야, 노동분야)를 구성하여 활동했음.

- 그러나 상생, 공정, 노동 분야의 개별 조례가 각각 제정되고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20.10.1.)된 이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형해화되었음.
- 당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대신하려 했으나 위원회 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례의 후속개정이 뒤늦게 이뤄지면서(2021.12.30.) 위원회 운영예산(사무관리비)이 전액 불용됨.
- 경제민주화 포럼(행사운영비)은 경기도,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경제민주화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 소개, 전문가 정책 제안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2021.9.~11.)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액 불용됨.
- 예산편성의 근거인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실행이 불확실한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해 무의미하게 사장시킨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전용, 변경 등의 예산변경 제도를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브릿지보증 포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과 기관운영, 2021년부터 시행한 폐업자의 보증(브릿지보증)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1,534억 9천만원을 편성해 전액 지출됨.
- 당초 본예산은 118억 6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 지속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보증(4무 안심금융)을 시행하고, 브릿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16억 3천만원이 증액됨.

<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최종예산
		1차	2차	
재단 출연금	(x-) 11.860	(x1,330) 92,390	(x1,330) 121,490	(x1,330) 121,490
재단 출연금 (브릿지보증)	(x-) -	(x8,000) 32,000	(x8,000) 32,000	(x8,000) 32,000
총 계	(x-) 11.860	(x9,330) 124,390	(x9,330) 153,490	(x9,330) 153,490

① 수입결산

- 재단의 수입결산은 4,494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6억 6천 4백만원(26.0%) 증가함.

-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무안심금융’ 등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 증가(서울시 78.1%, 자치구 125.6%)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기인함.

< 최근 3년간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결산액	전년대비 (%)	결산액	전년대비 (%)
합 계	139,290	356,830	156.2%	449,494	26.0%
수익적 수입 계	46,584	79,852	71.4%	87,999	10.2%
고유사업	46,584	71,846	54.2%	72,991	1.6%
보증료	29,693	56,628	90.7%	55,419	△2.1%
예치금이자	12,177	10,400	△14.6%	12,185	17.2%
대여금이자	53	35	△34.0%	25	△28.6%
수입수수료	907	1,438	58.5%	2,096	45.8%
임대료 등	3,754	3,345	△10.9%	2,923	△12.6%
보조금	-	-	-	243	-
기부금	-	-	-	100	-
수탁사업	-	8,006	-	15,008	87.5%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	6,548	-	11,187	70.8%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사업	-	71	-	64	△9.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100	-	181	81.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	642	-	607	△5.5%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391	-	441	12.8%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	254	-	1,813	613.8%
지정-자치구 수탁사업	-	-	-	118	-
서울경제활력자금	-	-	-	77	-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센터구축	-	-	-	270	-
서울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사업	-	-	-	250	-
자본·기타수입 계	92,706	274,046	195.6%	360,048	31.4%
고유사업	92,706	261,237	181.8%	303,265	16.1%
재보증보전금	29,351	29,635	1.0%	41,917	41.4%
출연금	63,272	230,232	263.9%	261,348	13.5%
서울시	6,580	80,965	1130.5%	144,161	78.1%
자치구	300	14,650	4783.3%	33,050	125.6%
정부	0	10,169	-	12,131	19.3%
금융회사 등	56,392	124,448	120.7%	72,006	△42.1%
임차보증금	83	1,370	1549.7%	0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결산액	전년대비 (%)	결산액	전년대비 (%)
기타사업	0	12,808	-	56,783	343.3%
예치금사용	0	0	-	0	-
순세계잉여금	0	12,808	-	56,783	343.3%
이월재원 수입 계	0	2,932	-	1,447	△50.6%

-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연금(58.1%)이며, 이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55.2%로,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2019년 10.4% → 2020년 35.2% → 2021년 55.2%).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
 - 한편, 금융회사 출연금은 2020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기업은행과 위탁보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공급 비율에 따른 안분 약 625억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소함.
- 출연금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또한 2021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재단의 특성상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운용배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반면, 보증료와 대여금 이자, 임대료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 수입이 감소함.

- 임대료는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수요 급증에 대응해 기간제 인력을 추가채용하면서 사옥본사에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일부 층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감소함.
- 보증료 수입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 보증상품의 확대 시행으로 재단의 운용배수가 급격하게 높아져 2021년에 가용할 수 있는 보증규모가 축소되고 기준보증료율(1.0%) 이하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임.
- 2021년에 신규 출시한 4무 안심금융 상품은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로,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단의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의 주요 사업 수입인 보증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② 지출결산

- 2021년도 재단의 지출결산은 4,015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29억 9천 4백만원(34.5%)이 증가함.

-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금과 재보증료가 2020년도에 이어 크게 증가했으며, 시니어 인력 채용 연장으로 인건비와 성과급이 증가함.
- 기타사업의 증가는 2019년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예치금 전입과 기본재산 적립으로 회계처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출연금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액	전년대비(%)	집행액	전년대비(%)
합 계	126,481	298,600	136.1%	401,594	34.5%
수익적 지출 계	66,102	103,858	57.1%	120,830	16.3%
고유사업	66,102	95,852	45.0%	108,277	13.0%
관리업무비	48,094	62,707	30.4%	67,809	8.1%
인건비	27,251	38,958	43.0%	45,033	15.6%
경비	20,843	23,749	13.9%	22,776	△4.1%
성과급	3,879	5,232	34.9%	7,393	41.3%
재보증료	13,609	27,913	105.1%	33,075	18.5%
예비비	520	0	△100.0%	0	-
수탁사업	-	8,006	-	12,553	56.8%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	6,548	-	10,286	57.1%
서울글로벌바이오 메디컬투지펀드 관리사업	-	71	-	64	△9.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100	-	181	81.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	642	-	456	△29.0%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391	-	426	9.0%
관악구 상권리네상스 사업	-	254	-	729	187.0%
지점-자치구 수탁사업	-	-	-	118	-
서울경제활력자금	-	-	-	77	-
스타트업데이터센터 구축	-	-	-	216	-
서울 소상공인 방역활 동비 지원 사업	-	-	-	0	-
자본기타지출 계	60,379	191,886	217.8%	279,531	45.7%
고유사업	60,379	57,780	△4.3%	80,298	39.0%
대위변제금	55,984	51,532	△8.0%	77,545	50.5%
투자자산	1,608	2,811	74.8%	1,148	△59.2%
유형자산	2,787	3,437	23.3%	1,605	△53.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액	전년대비(%)	집행액	전년대비(%)
기타사업	0	134,106	-	199,233	48.6%
예치금 전입	0	121,298	-	142,450	17.4%
기본재산 적립	0	12,808	-	56,783	343.3%
이월예산 지출계	0	2,856	-	1,233	△56.8%

- 2021년도 결산상의 손익(수입결산액-지출결산액) 479억원은 2022년도 재단 수입에 순세계잉여금(428억 2백만원)과 이월재원(50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됨.
- 재단의 2021년도 지출예산 집행률은 91.6%로, 집행률 90% 미만의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집행률 90% 미만인 세부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및 유형		예산액 (A)	집행액 (B)	차D월 (C)	잔액 (A-B-C)	집행률	미집행사유(집행률 90% 미만)
고유	경비	29,282	22,775	1,659	4,849	83.4%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으로 예산액 절감
	재보증료	38,195	33,075	-	5,120	86.6%	· 보증해지 증가로 인한 재보증료 순발생액 감소
	예비비	2,096	-	-	2,096	0.0%	· 업무계획에 따른 세출 추계액의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미집행
	대위변제금	90,600	77,545	-	13,055	85.6%	· 원금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구상채권 발생액 감소 등으로 순대위변제금 감소
	대여금	1,596	487	-	1,109	30.5%	· 직원주택구입 등 대여금 수요 감소
	임차보증금	800	576	-	224	72.0%	· 지점 이전 물건지 탐색 난망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
	투자유가증권 (회원권)	95	85	-	10	89.5%	· 구매 대상 휴양소 변경(구좌당 가격 변경)
	유형자산 (업무용기계 및 비품)	4,984	1,605	1,648	1,731	65.3%	· 지점 이전 물건지 탐색 난망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
수탁	서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투팜드관사업	78	64	-	14	81.2%	·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집행 축소
	서울형 마이크로커뮤니티 사업	607	455	79	73	88.1%	· 용역비 중 성과평가 결과 미달성에 따른 집행액 감소
	스마트치안빅데이터 센터구축	270	216	-	54	80.1%	· 사업수행업체에서 클라우드 계약 진행으로 협의하여 집행액 감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의 2% 이내¹⁹⁾에서 운용하는데 2021년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은 2건²⁰⁾에 그침.
-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대위변제금은 보증사고 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계획대비 85.6%가 집행됨.
-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일시상환 만기연장(최대1년)·분할상환 유예(6개월~1년) 시행함.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시행기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시행기간	2020.4.1. ~ 9.30.	2020.10.1. ~2021.3.31.	2021.4.1. ~ 9.30.	2021.10.1. ~2022.3.31.	2022.4.1. ~ 9.30.

- 임차보증금과 유형자산은 2개 지점(종로지점, 중랑지점)의 건물 노후로 인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을 계획했으나, 물건지 탐색이 어려워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
- 대여금은 직원주택구입 감소로 30.5%만 집행된 바, 대여대상과 대여금액 등의 조정을 통해²¹⁾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9)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총칙 제7조

20) 2017년 12월 - 서울시 노동혁신대책에 따른 직종전환 인건비, 2019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기관성과급 부족분

(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5천 8백만원 중 14억 6천 5백만원(71.2%)을 집행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2,058	1,465	1,465	-	593	28.8

- 정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²²⁾의 하나로 국·시비 매칭(7.5:2.5)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월 중도 압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83,590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21) 2021년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고자 재단 복지규정과 운영요령 개정(2022.2.)을 통해 미혼 직원까지 범위는 확대했으나 대여금액은 변동이 없어 논의가 필요함.

2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으로 구성된 패키지 사업

- 2021년에는 127개 사회적기업에서 961명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실적 >

구분	2019	2020	2021
지원기업	89개	110개	127개
지원인원	1,106명	1,008명	961명
지원금액	21억 5천만원	18억원	14억 6천 5백만원

-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신규 고용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열악한 소규모기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취약하여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과 함께 공공조달, 민간판로 개척 등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을 파악·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해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9천 5백만원 중 9억 7천 4백만원(75.2%)을 집행했음.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잔액비율(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295	974	974	-	321	24.8
사 무 관 리 비	350	334	334	-	6	1.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5	640	640	-	305	32.3

-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9개 단지) 운영 후, 2019년부터 서울시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2개의 단지가 사업에 참여함.
- 사업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문제 도출과 해결방안 모색을 시작하고, ▶2단계는 공동 생산·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임.

< 사업추진 3단계와 단계별 지원 사항 >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 위한 사업 지원 · 단지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 문제 해결 확산
최대 3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주체는 주민모임, 지역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성되며, 자치구와 서울시(광역지원단)은 행정사항을 지원함.

- 그러나 신규로 선정되는 단지가 지속적으로 감소(2019년 20개, 2020년 18개, 2021년 4개)하여, 2021년에는 총 12개 단지(1단계 : 4개소, 2단계 : 6개소, 3단계 : 2개소)만 사업에 참여함.

- 이는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동체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주민이 대다수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낮아 다음 단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가 적었기 때문임.

- 또한, 일반 시민이 설립한 지역공동체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간지원조직, 광역지원단 등의 복잡한 추진체계로 인해 예산집행 권한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동주택내

사업장 운영에 따른 법적규제(용도변경, 업종별 허가 등)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됨.

- 이는 면밀한 수요조사와 실태파악 없이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야기된 결과이며, 향후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조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IV. 예비비 지출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개요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비비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4건으로 배정액 11억 1천 2백만원 중 11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함.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5	184	1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77	77	-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한 시스템 운영 비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600	600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추가 추진
서울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50	250	-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정부 방역물품지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대면서비스업 부진, 소득 양극화에 따른 K자형 회복양상이 심화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한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2021.4.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2021.11.5.),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2021.12.28.)에 모두 11억 1천 2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11억 1천 1백만원(99.9%)을 지출함.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중에서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에게 총 2,141억원(재난관리기금)을 업종별로 추가지원(업종별 60~150만원)하는 사업의 행정비용²³⁾으로 예비비에서 2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함.
 - 자치구 현장접수처 운영비(25개 자치구, 1억 8천 5백만원)와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비용(서울신보 대행, 7천 7백만원)에 지출하고,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운영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반납받음(2021.12.15.).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비와 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6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함.
 - 당초 800개소를 목표로 16억원을 편성하여 점포당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8월말에 목표를 조기달성하고, 300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함(2021년 말 기준, 1,212점포 지원, 21억 3천 8백만원 지출).

23) 정부(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 편성시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행정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과 재원을 지원금과 분리·편성하도록 했음.

-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2억 5천 만원을 지출함.
- 정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기존 5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 (2021.12.6.)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10만원 한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측정기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를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교부 및 정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세부계획 수립, 집행점검 및 관리, ▶광역시방자치단체는 의무적용시설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방역물품비 기초자치단체 교부,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자 확인, 방역물품비 지급으로 각기 역할이 분담됨.
 - 그러나 서울시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 ▶선별진료소 파견,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자 관리,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업무로 인한 주민센터 인력 부족을 고려해 방역물품비 신청방식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시스템 운영과 모바일 인증, SMS발송을 대행하도록 함.
-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비비 지출에 앞서 전용이나 변경 등의 예산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V. 기금 결산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총괄 개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이하 “용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1년도 기금의 최종 운용규모²⁴⁾는 모두 4,674억 3천 6백만원으로 당초 3,190억 4천 8백만원 대비 1,483억 8천 8백만원(46.5%)이 증가함.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입·지출 계획		결산 (B)	집행율 (B/A)
	당초	수정(A)		
합 계	319,048	417,348	467,436	11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용 자 계 정	298,894	385,800	422,666	109.6
사 회 투 자 기 금	20,154	31,548	44,770	141.9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용자지원을

24)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운용(수입·지출)되는 규모(유량)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됐으며, 2018년부터 용자계정과 투자계정²⁵⁾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용자계정의 조성 총액은 8,062억 2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70억 8천 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하 “통합기금”) 예수금 2,400억원, 운용 손실 3,608억 6천 4백만원임.

< 용자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2.5월 말 기준)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806,222	927,086	240,000	△360,864

- 2021년도 말 용자계정의 현재액²⁶⁾은 전년도 대비 83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한 1,442억 3천 5백만원임.

< 2021년도 용자계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52,577	△8,342	270,089	278,431	144,235

(2) 기금 운용 현황

- 2021년도 용자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4,226억 6천 6백만원으로,

2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26)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남은 여유자금(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의 규모(저량)

용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증가로 계획액 3,858억원 대비 368억 6천 6백 만원이 증가함.

- 수입은 용자금 원리금 2,385억 8천 6백만원, 예금이자 22억 3백만원, 예치금 회수 1,525억 7천 7백만원, 예수금 2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273억원임.
- 지출은 민간용자금 1,993억 1천 7백만원, 비용자사업비 764억 8천 5백만원, 예수금 상환 26억 2천 8백만원, 예치금 1,442억 3천 5백 만원, 기금관리비 1백만원임.

< 용자계정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계	385,800	422,666	계	385,800	422,666
용 자금 원리금 회수	200,923	238,586	민 간 용 자 금	200,000	199,317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000	2,203	비 용 자 사업 비	77,109	76,485
예 회 치 금 수	152,577	152,577	예 수 금 상 환	2,628	2,628
예 수 금	2,000	2,000	예 치 금	106,058	144,235
기 타 회 계 전 입 금	27,300	27,300	기 금 관 리 비	5	1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21년도말 용자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1,442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함.

< 최근 5년간 용자계정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말 조성액	195,613	170,214	145,325	152,577	144,235

- 용자계정은 용자금 회수의 증가로 인해 연도말 조성액이 증가한 2020년²⁷⁾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수입부문에서 용자금 회수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감소하고, 지출부문에서 비용자사업비가 증가한데 기인함.
- 한편, 용자계정은 통합기금(舊 재정투용자기금)으로부터 총 2,400억원을 용자받았으나, 기금 사정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므로 용자 상환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19	2020	2021
상환잔액	218,000	218,000	238,000	238,000	238,000	240,000
원금상환	0	0	0	0	0	0
이자상환	2,398	2,398	2,515	2,618	2,618	2,628

27) 기존 2%대로 제공된 용자를 조기상환하고, 0%대의 초저금리로 신설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용자금 회수금이 증가하였음.

- 2021년도 융자계정의 운용규모 중 예치금, 예수금 상환,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2,758억 2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융자계정 사업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275,802
융 자 성 사 업	기 금 직 접 자 용	시설자금 : 설비투자, 입지지원등 시설자금 융자 지원	199,317
		재해·긴급자영업자금 : 재해,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융자 지원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 융자지원	
		코로나피해기업자금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비 용 자 성 사 업	시 중 은 행 협 력 자 금 지 원	이차보전금 : 은행협력자금 활용한 융자지원 후 이차차액 보전	73,684
	통 합 관 리 시 스 템 유 지 보 수	드림머니 유지보수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위한 통합 전산망 유지보수	181
	서 울 마 이 크 레 디 트 원 지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특별자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해 대행기관(서울신보) 사업비 지원	530
	기 금 업 무 대 행 수 수 료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평가수수료 및 시설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사후관리 수수료	2,090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융자계정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 을 조성·지원하는 구조로, 융자계정에서 기금 직접 융자비용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지출함.
 - 2021년 직접융자는 1,993억 1천 7백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736억 8천 4백만원을 각각 지출함.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협력

자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소멸성 자금인 이차보전금의 지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 등 기금 건전성 유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 획	8,100	8,000	14,000	21,400	36,000
	대출실행	7,986	8,053	13,563	21,106	36,688
이차보전금 지출액		346	326	336	453	737

- 용자계정은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과 4무 안심금융자금 신설, 용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위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4차례, 용자 지원계획을 5차례 변경함.
- 관련 자금은 추가경정예산 83억원(1차 추경 : 64억원, 2차 추경 : 19억원)을 통해 마련함.

< 기금운용계획 및 용자지원계획 변경 내역 >

연번	변경일자	변경내용
1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계획변경 : 1조원 → 2조원(증 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신설(1조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 (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억원 증액 (변경)코로나 19 민생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증액
2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기간 : '21.4.1 ~ 9.30 - 대 상 : 시행기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건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년 이내 • 용자지원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안정자금 한도심사제외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연번	변경일자	변경내용
		-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 확대
3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지원계획변경 : 2조원 → 3.5조원(증1.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민생안정자금 축소 : 1조원 → 5천억원(감 5천억원) - 4무 안심금융자금 신설(2조원)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입)기타회계 전입금 64억원 증액 (지출)4무 안심금융자금 2조원 공급 대비 이차보전금 95억원 증액 및 예치금 31억원 감소
4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변경 : (당초 수입·지출)307,294백만원 ⇒ (변경) 383,900백만원 <20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 수입 변경으로 예치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회수 75,971백만원 →152,577백만원 (증76,606백만원) - 예치금 36,074백만원 →112,680백만원 (증76,606백만원)
5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무 안심금융 저신용 자금 대상 확대(→중저신용자) - 4무 안심금융 일반자금 및 저신용자금 한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무 안심금융(일반) 1조4천억원 + (중·저신용) 1천억원 → (통합) 1조5천억원
6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기간 : '21.10.1 ~ '22.3.31 - 대 상 : 시행기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건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년 이내
7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기금운용계획(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지출규모 : '21년 2,989백만원 → '22년 3,562백만원(증 573백만원) •'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3조 5천억원→(변경) 3조8천억원(증 3천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무 안심금융 2조원 → 2조 3천억원(증 3천억원) •'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 (수입)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지출)4무 안심금융 3천억원 공급 대비 이차보전금 19억원 증액

-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당초계획보다 920억원이 증가한 3조 8,92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4만 574개 업체에 3조 8,497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대비 101.3%의 초과실적을 달성함.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용자추천			용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38,000	141,914	38,920	102.4	140,574	38,497	101.3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4,260	1,862	93.1	4,164	1,812	90.6

구 분	계 획 (A)	용자추천			용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시설자금	50	11	50	100	16	42	84.6	
경영안정자금	1,950	4,249	1,812	92.9	4,148	1,770	90.8	
성장기반자금	300	397	273	90.8	381	267	88.8	
기술형기업도약자금	50	52	36	72.3	50	32	64.7	
긴급자영업자금	500	1,925	503	100.7	1,867	488	97.6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	0	0	0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기금)	1,000	1,875	1,000	100	1,850	983	98.3	
시중은행협력자금	36,000	137,654	37,058	102.9	136,410	36,685	101.9	
일반자금	12,650	47,768	13,753	108.7	47,312	13,609	107.6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일반경제활성화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7,000	11,116	3,304	103.1	11,051	3,283	102.3
			13,386	3,911		13,277	3,878	
코로나19민생안정	5,000	20,952	5,888	117.8	20,545	5,765	115.3	
창업기업 자금	컨설팅기반창업 일반창업	500	137	50	100	134	49	99.1
			1,941	450		1,923	446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50	236	150	99.9	234	148	98.9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이차)	-	-	-	-	5	1	-	
집합제한업종특별자금 (경제활성화)	-	-	-	-	143	39	-	
특별자금	23,350	89,886	23,305	99.8	89,098	23,076	98.8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4	10	100	14	1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57	90		157	9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614	200	100	614	200	99.9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50	141	29	58.9	134	28	56.6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일반)	18,000	61,368	17,659	99.9	60,643	17,441	98.6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중저신용)		1,802	324		1,744	314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자치구)	5,000	25,790	4,993	99.8	25,789	4,992	99.8	
서울형 이차비용절감 대환자금	-	-	-	-	3	1	-	

○ 기술형기업 도약자금은 2020년 실적부족²⁸⁾으로 2021년에는 절반규모인 50억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으나 용자실행은 32억원(운용계획 대비 64.7%)에 그침.

- 저조한 자금지원 질적으로 인해 2019년부터 운용규모를 축소²⁹⁾하고 있으나 성과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다른 자금과의 통·폐합,

28) 2019년 운용계획 100억원 중 용자실행 37억원(37.4%)

29) 2019년 20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 50억원

용자 금리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 용자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용자실적이 없음.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은 2021년부터 용자실행 실적에 맞춰 운용규모를 축소(60억원→50억원)했으나 전년도 용자실행 47억원(78.3%)보다 저조한 28억원(56.6%)만 지출되었음.
 - 이는 신설된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이 보다 유리한 지원한도(1억원)와 금리(1년 무이자, 4년 0.8%)를 제공한데 기인함³⁰⁾.
- 용자계정은 경기 하방국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자금규모의 적정성, 유사 목적자금 설치 유무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출연금 확대 등으로 기금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은 지원한도 3천만원, 금리 3.3%(이차보전 1.5%)로 제공됨.

3. 사회투자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1) 기금 조성 현황

-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 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설치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사투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의 총 조성 규모는 908억 6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07억원과 운용 수익 10억 2천 3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³¹⁾ >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
90,862*	90,700**	1,023***

- 2021년도 말 사투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14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72억 6백만원임.

< 2021년도 사회투자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5,742	11,464	29,028	17,564	27,206

31) * 2021년 말 시금고예치금(27,206백만원), 2021년 말 채권현재액(60,856백만원), 임팩트투자 조합 출자금 누적(2,800백만원)

** 2013년도 전출금 : 500억원, 2016년~18년 : 매년 26억원, 2019년 : 156억원, 2020년 : 88억원, 2021년 : 85억원

*** 민간자금 매칭 제외 기금운용수익만을 산출(융자이자 694백만원, 공공예금이자 329백만원)

(2) 기금 운용 현황

- 2021년도 사투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447억 7천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132억 2천 2백만원 증가함.

<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입 결산			지출 결산		
구분	예산	결산	구분	예산	결산
계	31,548	44,770	계	31,548	44,770
전입금	8,500	8,500	용자사업비	23,500	16,000
융자금 회수	7,141	20,202	비용사업비	2,495	1,557
예금이자 등	65	236	기본경비	20	7
예치금 회수	15,742	15,742	예치금	5,533	27,206
기타수입	100	90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5억원(노동·공정·상생정책관 70억원, 주택정책실 15억원³²⁾), 융자금 회수 202억 2백만원(융자금 197억 4천 8백만원, 이자 4억 5천 4백만원), 예금이자 등 2억 3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 157억 4천 2백만원, 기타수입 9천만원임.
- 지출은 용자사업비 160억원, 비용사업비 15억 5천 7백만원, 기본경비 7백만원, 예치금 272억 6백만원임.

32)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융자분이며, 주택건축본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매년 26억원(총 130억원)을 출연했으나 2021년에는 15억원만 출연함.

나.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기금 총괄 검토

- 2021년도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272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4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음.
- 2021년에는 수입부문에서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부문에서 융자사업비 지출이 감소하여 조성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말 조성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13,217	15,742	27,206

-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1년말 현재 608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4천 9백만원 감소함.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별 채권 잔액	366,566	15,790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64,605	60,856
채권 이월액 (A-B)	49,956	4,890	9,598	15,074	873	7,356	10,748	5,166	△3,749
지출 융자금(A)	120,084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22,020	16,000
수입 융자원금 상환(B)	70,128	2,598	5,014	5,590	9,011	5,710	5,602	16,854	19,749

- 2021년에는 용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28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채권 관리로 장기연체채권의 회수가 증가하고 용자금 거치기간 만료에 따라 수행기관 상환도 증가했기 때문임.
- 채권 잔액의 감소는 용자수요의 감소와 보수적인 기금운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용자조건 완화와 신규 용자수요 발굴 등의 적극적인 사투기금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652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1,304건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했으나, 시 기금과 민간기금 모두 전년대비 용자 실적과 지원건수가 감소함.

< 사회투자기금 총 용자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용 자 금 액	합계	165,25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512	19,200
	市 기 금	128,48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22,020	16,000
	민 간 기 금	36,768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3,200
지원건수	1,533	72	44	81	65	170	137	127	594	243	

- 한편, 사투기금은 결산결과에 따라 증가된 예치금 회수수입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용자사업비 확대, 용자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자사업비 증액을 위해 계획을 한 차례 변경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1.7.7	《수입측면 : 11,395백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 4,347백만원 → 5,742백만원 (증 11,395백만원) 《지출측면 : 11,395백만원 증액》 - 융자사업비 : 17,500백만원 → 23,500백만원 (증 6,000백만원) - 비용자성사업비 : 1,780백만원 → 2,495백만원(증 715백만원) - 예치금 : 854백만원 → 5,534백만원 (증 4,680백만원)	《수입측면》 -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증가 《지출측면》 - 코로나19 상황지속에 따른 융자사업비 확대 및 융자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자사업비 증액

(2) 사업별 검토

- 2021년도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447억 7천만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사업계획 259억 9천 5백만원 중 지출액은 175억 5천 7백만원임 (집행율 67.5%).

< 2021년 사투기금 사업비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산내역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율)
합 계	25,995		17,557 (67.5%)
융자성 사업	23,500	소 계	16,00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7,000	(재)한국사회투자 : 900백만원 동작신협 : 2,000백만원 재단법인밴드 : 4,050백만원 신목신협 : 1,000백만원 한국사회혁신금융 : 250백만원 신나는조합 : 2,800백만원	11,000 (64.7%)
소셜하우징 융자	1,500	(사)나눔과미래 : 1,500백만원	1,500 (100.0%)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2,500	은행신협 : 2,500백만원	2,500 (100.0%)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2,500	재단법인밴드 : 1,000백만원	1,000 (40.0%)

비용자성 사업	2,495	소 계	1,557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기금 용자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보조 (지원기준 : 용자금액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 총 320백만원 보조금 지급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지원기준 : 확진피해기업 2.5%, 직접피해기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기관(245개 기업), 총 331백만원 이차보전금 지급 	651 (41.5%)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관리 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 64백만원 · 캠프 부문을 통한 소셜벤처하버센터 임차료 지급: 242백만원 	306 (92.7%)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600	· 비하이인베스트먼트(3호 펀드) : 600백만원	600 (100.0%)

① 용자성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성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용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1~5: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채용자하는 구조로 운용됨.
- 2021년 사투기금 용자성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셜하우징, 민간자산 클러스터, 고용취약노동자 등에 지출됨.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는 계획 대비 64.7%(110억원)만 지출되고, 고용 취약노동자 용자는 계획 대비 40%(10억원)만 지출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행기관의 공모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임.
- 2021년 용자 및 채용자 실적을 살펴보면, 8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160억원을 용자하고, 수행기관 매칭자금을 합쳐 총 173억 5천 9백 만원을 채용자함.

< 2021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채용자내역 >

(2022.4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수행기관	시 용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채용자 건수	채용자 금액
합 계	16,000	3,200	19,200	243	17,359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11,000	2,200	13,200	95	11,746
동작신협	2,000	400	2,400	12	1,546
재단법인밴드	4,050	810	4,860	35	4,860
신목신협	1,000	200	1,200	9	680
한국사회혁신금융	250	50	300	6	300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2,800	560	3,360	27	3,360
한국사회투자	900	180	1,080	6	1,000
사회주택 용자	1,500	300	1,800	3	1,800
나눔과미래	1,500	300	1,800	3	1,800
민간자산클러스터 용자	2,500	500	3,000	1	2,772
은행신협	2,500	500	3,000	1	2,772
불안정노동자 소액용자	1,000	200	1,200	144	1,041
재단법인밴드	1,000	200	1,200	144	1,041

- 그러나 일부 수행기관의 채용자 실적은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용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수행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성, 회수가능성, 사회적가치, 사회적기여도 등으로 채용자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수행기관별로 동일한 채용자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투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통일성 있는 채용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비융자성 사업

-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에 15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함.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액의 2%) 3억 2천만원, 코로나19 피해 기업대상 이차보전금 3억 3천 1백만원을 지급하여 계획대비 41.5%(6억 5천 1백만원)를 지출함.
 - 사투기금 수행기관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지면서 이차보전 대상 채용자 기업에 대한 심사도 지연되어 집행이 저조함.
 -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수행기관의 활용도가 낮은 사업비 보조금 보다는 보증보험료 지원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조기에 사투기금 수행기관이 선정되도록 공모일정을 조정해야 함.
- 기금관리비는 채권관리를 위한 담보설정 비용(6천 4백만원), 소셜벤처허브 센터 임차료(2억 4천 2백만원) 등으로 계획대비 92.7%(3억 6백만원)를 지출함.
- 임팩트투자³³⁾조합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모태펀드,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 임팩트 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제3호 투자조합을 결성함.

33)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3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조성규모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5억원, 우리은행 2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30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20억원, 군인당재회 10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존속기간	8년	8년	8년
투자현황	17개 기업, 121.5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48.9억원)	13개 기업, 132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53.5억원)	14개 기업, 194억원 (서울시 내 8개 기업 89.3억원)

- 투자조합은 조성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납입하는 구조로 운용되며, 제3호 투자조합은 2021년 까지 8억원을 출자함³⁴⁾.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되면서(2020.7.) 연례·반복적인 출자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매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2021년 출자분(6억원)은 시의회 동의 없이 출자했으므로 개정된 규정을 엄수하도록 주의해야 함.
- 투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임.

34) 2022년에 제3호 출자금 잔금(2억원) 납입완료(2022.3.).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목표투자수익률은 7%(제3호 조합 기준)로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구조로 순환될 예정이며, 제1호 투자조합에서 2건의 투자금 조기회수가 발생했으나 아직 전체적인 회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융자지원보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경영이 부각되고 있고,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주도로 ESG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을 추진되고 있어 임팩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다만,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조합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융자나 직접지원에 비해 서울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수익률과 지원효과, 투자에 따른 사회적가치의 상승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담당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김태훈	02-2180-8063